

'묻지마' 행정심판 청구 급증

노래방 등接客업소 불법 적발된 후 '음소' 일췌

광주시 25건 접수 ... 지난해 보다 11건 늘어

"권리구제 취지 어긋나 행정력 낭비" 지적도

장기 불황 속에 노래방이나 모델 등의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반 업소들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잘만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불법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으면 우선 행정심판부터 제기하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행정심판 제기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11건이 증가했으며,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가 전체의 절반인 13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안건 4건 중 3건, 지난달 27일에는 8건 중 4건이 이들 업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심의 안건 중 도우미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과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은 광주의 한 노래방은 '재

범'이어서 영업정지 취소 청구가 기각됐지만, 성인비디오를 틀었다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모텔은 '초범'인데도 고객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로 축소됐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이 업주의 해명을 듣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지만 여러 번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경우 기각 결정이나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로, 적발된 업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심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소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데, 행정심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업주에게도 해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로, 적발된 업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심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천기자 chadol@kwangju.co.kr

정신과병원 환자 2명 탈출 흥기 들고 도심 활보 소동

광주시 남구 송하동

광주의 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이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폭행한 뒤 병원을 빠져나와 흥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7일 광주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40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C재활병원에 입원중이던 송모(21·정신지체 2급)씨와 김모(여·29·중동조절장애 등)씨 등 2명이 이 병원 간호사 양모(여·29)씨와 보호사 김모(39)씨를 폭행한 뒤 병원을 빠져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 등은 양씨 등을 밀절레 자투로 위협, 출입이 통제된 폐쇄병동 문을 열게 한 뒤 간호사실 냉장고에 있던 흥기(과도) 2개를 챙겨 집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간호사 양씨의 신고를 받고 이들의 주거지와 주요 길목을 검문검

색하던 중 탈주 2시간 만인 7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입구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 직후 이들의 신병을 병원 측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송씨는 사복을 입고, 김씨는 환자복 위에 외투를 걸친 상태였으며, 흥기 1개씩을 옷 주머니에 넣은 채 4~5km를 도보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행인과 마찰 등 불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폐쇄병동에 갇혀지내던 송씨 등이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을 뛰쳐나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탈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병원 측을 상대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무단 이탈예방을 위한 탈주방지대책 준수 여부와 흥기 등 위험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원천기자 khk@kwangju.co.kr



前 公석군의장 집유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7일 납골당 사업을 돕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석군의회 전 의장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돈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영희기자 choice@kwangju.co.kr

어설꾼 강도 손가락 물리자 줄행랑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 강도행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물리자 흥기 마저 내던지고 달아난 '어설꾼' 강도가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은 7일 대낮에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한 이모(36)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지난 4일 낮 1시50분께 광주 남구 H아파트 조모(여·32)씨의 집 앞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라며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가 조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조씨가 손가락을 깨물자 흥기를 떨어뜨린 채 도주했는데, 경찰에서 이씨는 "흥기가 우연히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며 오리발.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빌라 옥상 30대 女 숨진채 발견

재혼 남편 가출신고 뒤 잠적

광주의 한 빌라 옥상에서 30대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1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S빌라 옥상에서 이 빌라에 사는 김모(여·34)씨가 침대에 쓰여 숨져 있는 것을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이 나선 경찰 등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의 입과 목에는 테이프와 전기줄이 감겨 있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남편 유모(34)씨로부터 가출 신고를 받아 김씨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과 테이프와 전기줄이 감겨 있던 점으로 미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석 달 전 재혼한 이 부부가 생활비 문제로 자주 싸웠다는 유족 등의 진술과 실종신고를 한 뒤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점을 토대로 남편 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영광 '저수지 변사체' 사건 용의자 자살

지난 4월 24일 영광의 한 저수지에서 중년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영광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인 오모(50)씨가 7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평택의 한 폐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광 저수지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을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모(여·46)씨로 밝혀낸 뒤 김씨의 가족 등을 조사, 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오씨는 지난 3년간 김씨와 알고 지내던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김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사 용했다가 김씨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검찰청사 내 검사 흥기폭행범 징역 3년6월

광주지법 선고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두른 40대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

상)는 7일 검찰 청사에 침입해 부장검사를 흥기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내부에서 공무로 부장검사의

머리 등을 내리친 것은 동기, 장소, 대담성 등에 비해 극히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

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광주지검 모 부장검사에게 침입, 부장검사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철제공구로 2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07년 6월 자신의 고소가 뜻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검사 5명에 대해 직무유기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기자 choice@kwangju.co.kr



"헌혈은 사랑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봉사회원 등 30여명은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자전거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헌혈자의 날(14일)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출발 직전 협차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월 5일 OPEN

아이엘리시아

특별 혜택: 20% 할인, 특별 서비스

문의: 062-671-1199

무상 최고 187만원 지원

에너지 최고 83% 절감 냉·난방시스템

에너지 절약비율으로 할부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문의: 062-252-2900